

'돈봉투 의혹' 위기감 커지는 민주...계파 갈등 번지나

비명계 '연루자 탈·출당' 목소리 지도부 "사실관계 드로나면 조치" 22일 송 전 대표 기자회견담회 촉각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파문이 더불어민주당을 뒤흔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약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관련자들의 자진 탈당 요구마저 분출하고 있다. 또 이번 사태는 당내 역할 구도와 맞물려 계파 갈등 양상으로 번질 조짐도 보인다.

당장 18일 비명계(비 이재명)계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의원은 물론 당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탈당을 거론했다. 검찰이 주도하는 사법적 절차에 이질감이 느껴지는 당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여 관련 당사자들의 탈당 결단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이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격적인 사태에는 그에 걸맞는 빠르고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가 당을 이끌던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특히, 이번 사태를 질질 끌다가는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당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비명계의 이 같은 주장이 2021년 전당대회와 대선,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던 '이재명-송영길 커넥션' 의혹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도부가 미온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이번 파문이 결국 당내의 이재명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는 진상 규명이 우

선이라며 일각의 자진 탈당 혹은 출당 조치 요구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전날 이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인 데 이어 직접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 만큼 일단 사태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일한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의혹 연루자들의) 자진 탈당을 당이 요구한 경우는 있었다"며 "이번 사건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지도부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 당선에 친명계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재명 측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도 "선제적으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라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긴 하다"면서 "다만 곧 이들이 검찰에 소환될 텐데 이후 수사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이 검찰 수사 결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도 피의사실을 대놓고 유출하는 검찰의 수사 결과만 뻔한 게 아니냐"며 "당이 이도 저도 못하고 '윤석열 검찰'만 바라봐야 하는 모순에 빠졌다"고 했다.

당내 '돈 봉투' 파장은 이번 주말 예정된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한 번 더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도 소상히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공식 요청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화답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한미 정상회담 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불가 공언해야"

김태효 차장 경질 다시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정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팰도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 기업이 러시아에 보유한 자산만 수조 원대이고 서방의 제재로 입은 손실도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미동맹 강화는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 몫이었던 외교 참사를, 이번만큼은 절대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임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안보리안"의 연이은 실패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우리 국

의과 안보를 해친 김태효 1차장부터 경질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해임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했다. 국회와 대통령실 가교역할을 해야 할 정부수석을 비롯해 실무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평소 국회와 야당을 쓸모없는 해충처럼 기피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모들이 배운 게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국제법적 대응은 물론, 인접국들과 공동 대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기동민 의원 "양복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어"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첫 공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기 의원의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양

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의 변호인도 동일한 의견을 말했다.

기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이수진 의원(54·비례대표)과 김영춘(61) 전 의원,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씨도 이날 법정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기 의원은 법정에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30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반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기척 수사이자 정치 재판"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를 받는다.

/연합뉴스

민주 원내대표 선거 후보등록...4파전 예상

홍익표·김두관·박광온·이원욱

친명 후보 없어...통합 최대 키워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등록을 18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현재까지 3선의 박광온·이원욱·홍익표 의원과 재선 김두관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이 출마 의사를 밝혀 4파전이 예상된다.

홍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쳤고,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조만간 등록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통합'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인한 당내 분열을 막고, 단일대오로 총선을 치를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친명' (친이재명)계에서는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대립전 양상으로 치러져 당내 갈등이 분출할 것을 우려해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다.

특히 원내대표 선거를 2주 앞두고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라는 대형 약재가 터진 만큼, 이를 수습할 통합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후보들 역시 저마다 '통합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박 의원은 친문(친문재인)계와 '민주주의 4.0'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원내대표 도전에 이은 '재수생'인 만큼 통표도 기대하고 있다.

홍 의원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등 조직력을 기반으로 표심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가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